

#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봉사(奉仕)를

호 > | > >

5001

물과 공기 그리고 햇빛을 비롯한 천지간의 삼라만상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면 모든 동식물은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우주의 자연현상을 비롯하여 자연물 하나하나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있는 것에게는 물론, 특히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고마운 것들이다. 하물며 인간 상호간에 있어서랴?

우리말 큰 사전에 봉사(奉仕)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이라고 하였고, 또 하나의 봉사(奉事)는 “어른을 받들어 섬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일찍이 인도의 민족해방운동 지도자 인드라 간디는 “최고의 도덕이란 남을 위한 봉사와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아프리카 원시림의 성자로 추앙받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생명있는 모든 것에 봉사함으로써 나는 세계에 뜻있고 목적있는 행동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매사에 감사하며 봉사하는 이웃들이 많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멀리는 솔페리노 전쟁터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상자를 구호한 세계 적십자의 창시자 앙리 뒤낭의 의료 봉사,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난하고 병든 원주민들에게 인간애를 베푼 슈바이처의 인술 봉사, 그리고 가깝게는 일생을 통해 땀과 눈물로 한평생 모은 재산을 서슴없이 장학금으로 기증한 김밥 할머니 이복순 여사의 장학 봉사, 그리고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서 힘든 부두 노동이지만 천직으로 여기고 인천 지역사회와 조국이 있기에 생업을 가질 수 있다는 고마움에서 이에 보답하고 자신들의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박봉의 일부를 모아 30여억원이라는 거액으로 숙원이었던 인항고등학교(人港高

교장 민병준



等學校)를 세우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1,500여 후세들에게 은혜로운 배움의 터전을 마련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4천여 인천 향만 근로자들의 육영 봉사는 그 대표적인 것이며, 그밖에도 성스럽고 훌륭한 사회 봉사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수 없이 많다. 이와 같은 봉사야말로 고귀하고 희생적인 봉사정신의 극치로서 남이 보든 말든 아무런 조건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 행해지는 참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정신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니 웬일인가?

유태인의 성전인 <탈무드>에는 감사에 대하여 “최초의 인간 아담이 빵을 먹기까지는 발을 갈고 씨앗을 뿌려 가꾸고 거두어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여 굽기까지 15단계를 거쳐야 하니 빵을 먹을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우리들이 한 끼니만 건너도 허기를 느끼는, 우리의 주식인 쌀밥이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88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많은 단계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새벽부터 정성껏 아침 밥상을 차려 주시는 어머니께조차 고마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

남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보람있고 흐뭇하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 인항인 모두는 신이나 자연에는 물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다. 이에 본교에서는 매사에 감사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인간 교육이 철저히 요구되어 봉사(奉仕)를 교훈(敎訓)의 한 덕목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